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수산전선의 전위대, 선봉대로 내세워 수산부문에서부터 군인생활과 인민생활향상의 돌과기를 열어 나가며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창조된 모범을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새로운 천리마대교조의 불길의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당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명심하고 당중앙이 정해준 침로따라 전속으로 내달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소원을 반드시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점령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높이 쌓아올린 물고기보물산은 위대한 정신력이 응축된 위훈의 탐이라고 하시면서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인 오늘날 순간의 안일과 헤이, 침체와 담보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서해 전역은 우리 당,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총포성없는 대격전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거세찬 수산열풍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자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게 전인불발의 의지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결사전을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다음해에도 포구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모두 황금해로 전변된 사회주의조국의 바다에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고 모든 초소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짙 차넘치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용감히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조국의 바다우에 황금해의 세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터치는 참가자들의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으로 하여 회의장은 세차게 끓어번지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낭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직접 수여하시었다.

열광의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수여

해주신 당 및 국가표창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평범한 어로전사들을 황금해역사의 창조자로 키워주시고 오늘은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참가자들과 함께 당기가 펄펄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해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욱 높이 울림으로써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풍족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의도를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